

NOVEMBER. 21. 2021

PRESCHOOL NEWSLETTER

BETHEL CHURCH * 유아부 주보



Our Vision

유아부의 비전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신체, 지성, 감성, 영성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The vision of our preschool group is to help the children to meet Jesus as the Lord, and encourage them to become the children of God that grow their body, wisdom, emotion, and spirit within the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alendar

11/3 November Birthday Party
Bible Reading Award

11/21 Thanksgiving Sunday

11/28 Submit Your October Bible
Reading Chart



Announcement

1. 유아부 환영 선물이 있습니다!

Welcome gift for preschoolers!

모든 유아부 자녀들에게 베델 유아부 백팩을 선물로 줍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올 때 유아부 백팩에 성경책과 헌금, 물병을 들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All preschoolers are given a Bethel church preschool Backpack as a gift. Help your children bring Bibles, offerings and water bottles in their toddler backpacks when they come to church.

2. ATTENDANCE 출석을 해주세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인증하는 사진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줍니다!

Please send a picture of your child to your teacher attending our worship service on Sundays. You can collect talents.

3. Daily BIBLE Reading 성경읽기표

매달 성경을 읽은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줍니다!

Please mark the calendar with the days that you and your child read the bible together and send it to your teacher by 11/30.

4. 11월 Memory Verse 성경암송

성경암송을 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줍니다!

Please send a video of your child to your teacher during September and October.

Bible Lesson

기쁠때도 슬플때도 항상 감사해요! (시편 106:1)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지키게 되었을까요? 옛날에 하나님을 잘 믿는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찾아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미국에 도착했지만, 기쁨도 잠시, 춥고 먹을 것이 없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했어요.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종일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음식도 나누어 먹었어요. 청교도들은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함께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후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며 한해동안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아주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때나 슬플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자녀축복 기도문



하나님, 오늘은 ○○(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함께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아주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때나 슬플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